

| | | | |
|---|--|---|--|
|  인천광역시 | 보도자료 | |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
| | 배포일자 | 2023년 8월 23일(수) 총 2매 | |
| 담당 부서 비상대책과 | 담당자 | • 비상대책팀장 정성준 ☎440-5761 • 담당자 김명섭 ☎440-5783 | |
| 사진(이미지)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고자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인천시, 전시상황 대비해 서해5도 주민 출도 훈련 실시
 - 을지연습 연계 위기상황 가정 하 도서주민 주민 실제 구호 훈련 -
 - 경비정·공기부양정, 소방헬기, 재난의료지원팀, 이동 급식차량 등 동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월 23일 백령도 및 연평도, 영종도 해경기지 일대에서 인천시교육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등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5도 주민 출도 및 구호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것으로, 백령·연평도 등 서해5도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포격을 도발한 상황을 가정해 백령도와 연평도, 영종도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실제 훈련에 앞서 지난 16일 인천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해 통합방위 ‘을중’ 사태와 서해5도 주민대피 및 민방위대원 동원령 등을 선포했다.

이날 훈련에는 해경 경비정 및 공기부양정, 소방헬기, 재난의료지원팀(DMAT), 이동용 급식차량 및 주민구호용 쉼터 등 장비가 동원돼, 섬 주민 출도하는 것을 가정해 대피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전개됐다.

주민들은 경비정과 공기부양정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포격 도발로 인한 화재진압, 부상자 등 위급환자 후송, 출도 주민 구호 및 임시구호시설 이동, 피해복구를 위한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반 가동 등 전시 상황에서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소규모 또는 도상연습으로만 진행됐던 것을 인천시가 주관해 실질적인 대응 절차를 검증하고 숙달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된 종합훈련이다. 인천시는 대규모 주민 출도 및 구호 훈련의 성과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상시 구호태세를 갖춰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냉혹하고 엄중한 현재의 안보상황 속에서 인천에는 국가의 많은 중요 핵심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또한, 북한과 직접적으로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인천의 지정학적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